

대구식약청, 식품 전공 대학생 현장실습  
프로그램 운영

- 식품 전공 대학생 대상 진로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
- 식품 중 중금속, 식중독균 등 이화학·미생물 검사 관련 이론과 실습 진행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이하 대구식약청)은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\*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‘2025년 하반기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(Open Lab)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현장실습 프로그램은 대구·경북 지역의 식품 전공 대학생에게 식약처의 업무를 소개하고 시험·분석 현장실습 등 진로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매년 상·하반기로 나누어 개최(연간 2회)하고 있다.

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▲식약처 업무소개 ▲식품 관련 법령 및 기준·규격의 이해 ▲식품 중 중금속, 식중독균 등 이화학·미생물 검사 이론 및 실습 교육이다.

대구식약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식품 분야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식품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	책임자	과 장	문현주 (053-589-2770)
		담당자	주무관	이효정 (053-589-2772)